



식량과 비료

2023년
4월호



1. 회원사 동정
2. 협회 주요 활동
3. 무기질 비료 관련 동향
4. 농정 이슈
5. 무기질비료 수급상황
6. 무기질 비료 우수성 홍보
7. 이달의 주요 인사
8. 회원사 제품소개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1 회원사 동정

□ 남해화학(주)

- 국립식량과학원-남해화학, 맥류 완효성 비료 시비기술 개발에 나선다
- 5일 전남 여수 남해화학 본사에서 업무협약식



농촌진흥청은 5일 전라남도 여수시 남해화학 본사에서 국립식량과학원과 남해화학이 '맥류 완효성 비료 시비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남해화학(주)은 이달 5일 전라남도 여수시 남해화학 본사에서 '맥류 완효성 비료 시비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2023.4.5. 영농자재신문 기사내용 인용

○ 여수산단 엔이에스머티리얼즈 지역인재 위주 14명 채용

- 반도체용 고순도 황산 생산 설비 건축 중

화학비료 제조업체인 남해화학 자회사인 엔이에스머티리얼즈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여수시 8명을 비롯해 순천·광양 출신 3명씩 모두 14명의 사원을 선발했다. 채용전형에서 자회사에서 운영 중인 지역인재 가점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회사는 오는 4월 여수시 낙포동 소재의 남해화학 공장부지 내에 반도체용 고순도 황산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생산시설 운전 및 점검, 품질관리 부문에 주야 교대근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엔이에스머티리얼즈는 남해화학이 70%, 이엔에프테크놀로지가 20%, 삼성물산이 10%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합작사다.

이 회사 하형수 대표이사는 “남해화학은 자회사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여수국가산업단지 기업 간의 상생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2023.4.3. 헤럴드경제 기사내용 인용

□ (주)조비

○ ‘모범납세’ 기재부 장관 표창



▲ (주)조비 이승연 대표이사

국내 비료산업의 대표기업인 (주)조비(대표이사 이승연)가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1955년 설립되어 올해 창립 68년을 맞이한 (주)조비는 그동안 고품질 비료 생산을 통해 농업인들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특히 성실납세를 통해 선진납세문화 정착 및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해 왔다. 국내최초로 완효성비료를 개발하여 국내 비료기술의 선진화와 과학화를 선도하고 있는 (주)조비는 다양한 녹색경영과 나눔활동으로도 업계에 귀감이 되고 있다.

조비는 ‘끊임없는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여 풍요롭고 건강한 삶, 인류와 공존하는 푸른 환경에 기여한다’는 기업미션에 따라 ESG경영 및 녹색경영에 앞장서고 있으며, “나눔경영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우리사회를 풍요와 행복이 넘치는 푸른세상으로 만든다”라는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나눔경영 선언문에 따라 다양한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표창을 받은 이승연 대표이사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회사가 되고자하는 경영 이념에 따라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녹색경영, 나눔경영, 윤리경영의 확대를 통해 농업인들과 함께 농촌사회 발전과 농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2023.3.9. 농기자재신문 기사내용 인용

○ 완효성비료는 역시! 단한번비료!

- 1990년대 국내최초 공급시작한 ‘원조’ 완효성비료
- 2023년 신제품 ‘빅센’, 완효성 고도화한 야심작



2023년은 (주)조비가 완효성비료 시장에서 또 한 번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조비는 올해 ‘단한번에올코팅’의 제품명과 패키지를 리뉴얼했고, 완효성을 고도화한 야심작 ‘빅센’을 신규로 출시했다.

조비는 1980년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완효성비료 개발에 성공했다. 단한번에올코팅과 빅센은 물론 28년 연속 판매 1위의 ‘단한번’까지 모두 조비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완효성비료 제조 기술로 만들어졌다. 이들 제품은 모두 비료의 입자가 균일하고 단단해 측조시비 등을 위한 기계 살포시 막힘 현상이 없다. 또한 1회 시비로 비효가 생육 후기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웃거름 생략이 가능해 시비 노동력이 절감되는 생력형 완효성비료다.

비료 용출량도 벼 생육시기별로 정확하게 설계됐다. 이를 통해 조비는 비료 사용량 및 사용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농촌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함께 판매 중인 ‘단한번S’, ‘단한번에올코팅S’는 생육기간이 짧은 조생종과 이모작 벼, 저온 지대(산간, 경기북부, 강원 등)벼의 생육 단계에 맞춰 설계된 완효성비료로 선택 사용이 가능하다.

단한번, 부동의 판매 1위 완효성비료

단한번은 28년 연속 전국 완효성비료 판매율 1위, 시장점유율 1위(2022년 기준)를 달리고 있는 명실공히 업계의 최강자다. 1회 시비로 비효가 3~4개월간 유지되기 때문에 웃거름 생략이 가능해 시비 노동력이 절감된다.

단한번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 ‘아미톤’은 대사 활성 물질로 뿌리 생육을 증진시켜 질소 유실을 최소화하고 양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준다. 흡수된 양분은 생리장애 예방 및 면역력 향상 등 작물의 종합적인 대사 활동을 활성화한다. 벼 외에 고추, 마늘, 양파 등 생육기간이 길고 시비 횟수가 많은 원예작물에도 효과가 있다.

단한번에올코팅, 생육시기에 맞는 비료 용출로 품질 ↑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식량과 비료

-2023년 4월호-

‘단번에올코팅’은 비료의 3요소인 질소, 인산, 칼리가 모두 100% 올코팅된 비료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 3가지 핵심 유효성분이 작물의 생육주기에 맞춰 적절히 용출되면서 시기별로 최적의 양분을 공급해 벼의 건강한 생육을 돕는다. 이는 곧 도복 경감 및 수량 안정화 등을 통해 품질 향상을 이끈다.

빅센, 단한번과 단번에올코팅의 장점을 모두 모았다!

빅센은 단한번과 단번에올코팅의 장점이 적절히 조합을 이룬 2023년 신제품이다. 단번에올코팅과 동일하게 질소 함량이 높고 질소 외에 인산, 칼리가 추가로 코팅돼 완효성이 고도화된 데 더해, 작물의 뿌리 활착 및 초기성장에 도움을 주는 단한번의 아미톤 성분까지 추가됐다.

※ 2023.4.17. 농기자재신문 기사내용 인용

□ (주)팜한농

○ 4월 추천제품

- 광분해 한번에아리커



코팅 재료가 햇빛에 분해되는 국내 최초 원예용 광분해 완효성 비료 ‘광분해 한번에아리커’는 원예작물의 생육에 최적화한 ‘한번에아리커’에 국내 최초로 광촉매 융합 기술과 피복 분해 기술을 적용한 원예용 광분해 완효성 비료다. 제품의 차별성과 성능을 인정받아 지난해 ‘원예용 복합비료 조성물’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

‘광분해 한번에아리커’가 함유한 질산태 질소는 작물의 초기 생육을 돕고, 완효성 비료 성분은 생육 후기까지 꾸준히 용출되며 양분을 공급해 웃거름 시비 횟수를 줄여준다. 웃거름을 자주 주는 작물과 멀칭재배 및 저온기 정식 작물에 사용 시 노동력과 영농비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팜한농의 광분해 기술(에코물라)이 적용된 코팅 완효성 비료는 햇빛에 노출되면 코팅 재료가 서서히 자연 분해돼 환경 보전에도 기여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녹색기술인증’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화학·생명 분야 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했다.

※ 2023.3.27. 농기자재신문 기사내용 인용

□ (주)풍농

○ 농업인 애로 해결이 비료 발전의 원동력

- 農&산업의 리더를 만나다

풍농 대표이사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샐러리맨의 최고위 승진’을 일궈내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 기억나는 일화가 있다면.

대학 졸업 후 풍농에 입사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았고 비어있는 경북 영업담당으로 다음날부터 출근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하게 됐어요. 6~7개월 일한 다음 경남영업소로 다시 발령 받아 내려갔죠. 드넓은 경남에 풍농 대리점은 고작 4개, 그런데 용성인비 빼고 1천톤이 목표라고 하니 기가 막혔어요. 서류가방 하나 들고 버스타고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영업하고 대리점 늘리다 보니 4년의 시간이 쏠살같이 지나갔어요.



이동렬 (주)풍농 대표이사



그 다음 본사로 올라와 영업관리, 개발부, 농협 입찰 등을 담당했어요. 시련의 시간도 있었지만 고마운 일도 많았습니다. 차장 때였는데 담당하고 있던 입찰업무 관련 빼앗히는 일이 발생해서 공장 파견근무를 가게 됐습니다. 승진은 물건너갔구나 포기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은 그 해 부장 승진에서 저를 빼놓지 않으셨어요. 그후 임원 승진까지 하게 됐고 그런 믿음에 지금까지도 감사하죠.

비료는 농가 비용과도 직결돼 있으며 해외 원자재 수급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특히 2021년~2022년 원자재 가격 폭등을 겪었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산업이라는 염려도 많아요.

비료 원자재는 수입하기 위해 조율하는 시간이 길고, 중국만 해도 6개월 걸린다는 마음으로 해왔죠. 특히 풍농은 공장이 내륙인 충남 서천에 위치하고 있어서 타 업체에 비해 운송의 까다로움이 더 커요. 최대의 수입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차례로 막히고 원자재 수급 어려움을 겪을 때 일 년에 몇천, 몇만 톤을 써야 하는 원자재를 컨테이너로 들여온 일도 있었어요.

차량용 요소수 부족 사태가 터지고, 요소 수급 어려움이 이슈가 되면서 “비료 생산을 할 수 없다”라는 가정에 오싹해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참에 수입처 다변화를 비롯해 해외 변동의 대처 능력을 굳건히 하는 한편,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료산업의 특성도 인지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들어 비료 시장 상황은 어떤지요?

판매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비가 좀 오지 않았든지 쌀값이 떨어졌든지 하는 이유가 있긴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과 농업인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과 연관이 있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올해 1월 농협 계통비료 가격 결정이 되지 않아 멈춰 버리니까 전년 대비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2, 3월에 그 부분이 메꿔져야 하는 하는데 안되는 거예요. 대농업인 비료 가격이 내렸는데도 안 팔리니까 걱정스럽죠. 가뭄부터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비료 시장 자체도 지각변동을 하고 있지 않나요. 노동력 부족이나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도 나타날 테고요.

일본에서 완효성비료가 아직 시장의 15%를 넘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10%쯤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20%를 넘기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탄소정책과 연관이 됩니다. 완효성 비료는 비료성분이 서서히 용출되니까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적게 나온다는 접근이 가능해요. 농업인들은 비료 사용을 줄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최근엔 일반 비료 안에도 코팅비료를 좀 넣어서 ‘완효성’을 강조하기도 하죠.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서 완효성비료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료 자체가 다양해지고 농업인들의 선택과 사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우스의 경우 토양시비에서 첨단산업 액비인 관주용 비료로 다 바뀔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이스라엘 다녀오고 농가 시범포 하던 분이 떠오르는데 정식전 토양개량 위한 석회질·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고 정식 후에는 관주용 비료만으로 농사를 잘 짓는 모습이 당시엔 놀라웠죠. 지금은 일반화 추세여서 머지않아 하우스 작물은 토양시비 자체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정부에서 스마트팜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비용의 첨단기술을 넣어서 현실적으로 얻어낼 실질적 이득이 없다는 게 큰 어려움이죠.

성주 참외만드는 습해와 병 때문에 연동하우스를 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우리는 우선 효과적이고 환경부담이 적으면서 사용이 쉬운 비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주시설재배에서 물에 녹여 사용하도록 수용성원료만 사용한 ‘무레타 비료’를 개발했는데 시장 반응이 좋습니다. 농사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관주용 고품질 비료가 시설재배 농가에게 중요합니다.

농지가 줄고 있고 농업인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 자체도 기업에

게 부담이 될 듯합니다.

좀 아까 완효성비료와 관주용비료가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토양시비에서 이제 나올 만한 비료는 대부분 갖춰다고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시장은 무궁무진하다는 걸 가끔 상기시키는 제품들이 있어요. 최근 우리 히트작 중에 완효성비료 ‘롱런모든작물’(12-5-5, 고토2, 붕소02, 규산6, 석회15)이 있어요. 질소 12% 완효성비료를 갖고 농협에 들어가니까 처음엔 말이 많았죠. 그런데 하나 둘 좋은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작년에 제주도에에서만 3000톤이 팔렸어요. ‘롱런모든작물’은 완효성비료로서 규산과 석회를 보충했어요. 그러니 배, 과수는 물론 다양한 밭작물에서 진가가 나타나죠. 올해는 전체 1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산될 거라는 기대도 하고 있어요.

농협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시장은 장기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인데.

농협 의존 비율이 수출용을 빼고 나면 90%가 넘습니다. 농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가격 조정과 통제가 더 문제시 된다고 봅니다. 하우스용 비료 얘기도 했지만 정말 농사가 잘 되는 기술이 담겨 있을 때 농가는 고가의 비료를 선택하거든요. 우리 대리점인 어느 원예조합 농자재판매장에 갔다가 놀란 적이 있어요. 주차장 한켠에 비료가 쌓여 있는데 4분의 3이 외국산 브랜드 비료였어요. 우리가 농협 입찰가격 등 이런저런 이유로 개발하지 못하면 외국산에게 자리를 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농산업 기업들이 인재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풍농의 미래 기업 비전이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풍농은 비료사업이 핵심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250명의 직원이 있고, 영업본부만 보아도 제가 입사했을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로 현재는 30명의 영업직원이 150여개 대리점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최근 호텔사업(서울 마포구 호텔나루)에도 첫 발을 내딛었어요. 또한 경기도 오산 1만5000평 대지에 5층 대규모 임대용 물류센터를 지어 이달에 개장했습니다. 제가 신사업팀장도 겸했던 터라 제 컴퓨터에는 7~8개의 신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250명 직원과 미래 직원들의 행복한 삶과 꿈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 2023.4.15. 영농자재신문 기사내용 인용

2 협회 주요 활동

- 협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4.7)
- 국제 원자재 수급 상황 및 수출 확대 등 현안 대처(농식품부, 농협)
- 회원사 및 농업전문지 기자 소통 강화
- 비료관리법 개정 관련 회의 참석(농진청)

3 무기질비료 관련 동향

□ 무기질비료 농협 계통가 조정 업계 촉각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인으로서는 코로나19 국면 안정화, 러시아발 비정상적 경로로의 대량 수출 의심 등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전세계 비료 수요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농협 농업경제지주는 2분기 무기질비료 계통구매 가격 인하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료 생산·공급 업체들은 이미 지난 1분기에 가격이 13%나 인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 공급가격 인하는 어렵다는 의견을 농협 측에 전달한 상황이다.

비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판매되는 비료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높은 가격에 사들인 원자재로 제조한 제품들인데 당장 가격이 떨어졌다고 제품가를 낮출 수는 없다”며 “1분기에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손해를 보면서 공급했는데 본격적인 물동량이 움직이는 지금 또 다시 가격을 낮추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 절감이라는 목적에 공감해 정부의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참여해 10%의 비용을 부담하는 등 함께 노력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너무 희생만 강요한다”고 하소연했다.

비료업계는 비료 계통가 인하 불가 이유로 높은 재고율, 출하량 감소도 들고 있다. 이맘때 시장의 비료 재고율은 보통 50% 이하로 떨어지는데 업체들은 현재 재고량이 70%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하량도 예년 대비 20~30% 줄었다.

또 다른 비료업계 관계자는 “1월에는 계통가가 늦게 결정돼서, 2월에는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여러 이유로 출하량이 크게 줄었다”며 “무기질비료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기대 심리도 출하량 감소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통가가 인하돼도 많이 팔면 그나마 괜찮은데 현재는 출하도 저조한 상황이라 걱정이 크다”며 “2분기에 계통가를 동결한다 해도 업체들은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덧붙였다.

※ 2023.4.19. 농수축산신문 기사내용 인용

□ (농식품부)정부 비료 가격안정 지원으로 실제 논벼(쌀) 생산비는 통계청 조사 결과보다 낮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중 비료비 89,083원/10a는 정부가 ‘22년부터 시행한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지원규모 : 3,304억원)’에 따른 비료 가격 인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비용으로써 가격인하 효과를 반영할 경우 실제 농가가 부담한 비료비는 이보다 상당 수준 낮은 60,000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22~) :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통계청에 따르면 「논벼(쌀) 생산비조사」를 실시할 때 비료, 농약 투입비용은 구입경로가 다양하고 구입처에 따라 정부, 지자체, 농협 등의 지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포함된 정상 판매가격으로 조사됩니다.

실제 2022년 상반기의 무기질비료 정상 판매가격(평균)은 20kg 포대당 23,900원이었으나, 비료 가격 지원이 적용된 농업인 실구매가격은 14,620원이었습니다. 2021년 8월 기준 평균 가격인 12,300원과 비교할 때 전년 대비 94.3%의 상승 요인이 있었으나,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 부담 비료비 상승률을 18.9%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1.8.) 12,300/20kg 포대 → (‘22.상반기) 23,900원/20kg 포대[미 지원] (94.3% ↑)

→ (‘22.상반기) 14,620원/20kg 포대[정책지원] (18.9% ↑)

농식품부는 올해도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을 위해 국비 1,0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자체, 농협과 함께 지속 지원할 예정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2023.3.30. 농식품부 보도자료

□ (경기도농기원)‘비름’ 비료사용 처방기준 설정

- 공익직불제 시행(‘20.5.1)에 따른 소면적 작물 ‘비름’ 비료사용처방 및 기준설정
- 도내 들깨, 비름, 돌나물, 순무, 근대 농가 비료사용 현황 조사 및 재배시험 추진

※ 2023.4.10. 경기도농업기술원 보도자료

□ (농식품부)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맛과 우수성 전세계 바이어로부터 극찬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2023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4.19~21)
- 40개국 456개사 참가, 총 2,042건 151백만불 규모의 상담 진행으로 수출 현장 계약 31건 19백만불 달성

※ 2023.4.24. 농식품부 보도자료

□ 'K-Food+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40개국 456개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이 참가하는 수출 확대의 장(場)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3년 K-Food+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열고 있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우리나라 포함 총 40개국 456개 기업(136개 해외 바이어, 320개 국내 수출기업)이 참가해 코로나19 시기 이후 최대 규모로 개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상담회 개최 전부터 해외 바이어의 관심 품목을 사전 파악해 수출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업 간 온라인 사전 면담을 주선해 상담회 기간 중 실질적인 수출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수출상담회와 연계해 주요 식품기업,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기업대표, 유관기관장 등 총 22명과 함께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제2차 간담회를 주재한다.

전후방산업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수출용자(1,000억 원 규모, 기업 당 최대 50억 원) 신규 지원 및 스마트 농업 펀드(200억 원) 조성 △수출펀드(200억 원) 조성 △농기계 원자재 구입자금 규모 확대(2,000억 원→3,000억 원) 및 기업 당 지원한도 확대(중견 500억 원→600억 원, 중소 50억 원→60억 원) △비교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6,000억 원) 대상 원료 품목 확대(9개 → 12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23.4.20. 농축유통신문 기사내용 인용

4 농정 이슈

□ (농식품부)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 마련

○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 논의

-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 3조 원 이상, '27년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
- 탄소중립 지원 프로그램 도입, 전략작물·친환경직불 확대

※ 2023.4.6. 농식품부 보도자료

□ (농식품부)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국회 부결에 대한 입장

- 정부는 4.6일 발표한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

오늘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 부결되었습니다.

정부는 남은 쌀을 수확기에 전량 강제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안이기에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4.6일 민·당·정 간담회를 거쳐 발표한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제 등 실효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직불제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 2023.4.13. 농식품부 보도자료

□ (통계청)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 2022년 농가는 102만 3천 가구, 어가는 4만 3천 가구, 임가는 10만 1천 가구임

- 2022. 12. 1. 현재 우리나라 농가는 102만 3천 가구, 어가는 4만 3천 가구(내수면 제외), 임가는 10만 1천 가구

* 전년대비 농가(-0.8%), 어가(-1.8%), 임가(-3.0%) 모두 감소

- 인구는 농가 216만 6천 명, 어가 9만 1천 명(내수면 제외), 임가 21만 명

* 전년대비 농가(-2.3%), 어가(-3.2%), 임가 (-4.1%) 모두 감소

※ 2023.4.19. 통계청 보도자료

□ (통계청)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 10a당 논벼 생산비는 85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6만2천원(7.9%) 증가

○ 20kg당 쌀 생산비는 3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3천원(9.3%) 증가

- 10a당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12kg(-2.3%) 감소

※ 2023.3.30. 통계청 보도자료

□ (농식품부)올해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위기국에 쌀 5만톤원조

○ 기후변화, 분쟁 등으로 심화된 국제 식량위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개도국의 난민과 이주민에게 매년 쌀 5만톤 지원

※ 2023.4.21. 농식품부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24년 예산안 편성 본격 돌입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3.28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였다. 「'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방향을 담아 작성되었다.

기획재정부는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2023.3.2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탄녹위)'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의결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23~'42) 최초 수립

○ 국가비전(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실현을 위해 국가전략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감축정책 및 이행기반 강화 정책 제시

◆ 실현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比 △40%)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등 부문별 감축 목표 합리적 조정,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

※ 2023.4.1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

5 무기질비료 수급상황

□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단위 : 천톤, 누계)

구 분	'20년	'21년	'22년	'22년 2월	'23년 2월
생 산 량	2,142	2,397	2,039	391	353
출 하 량	2,054	2,429	1,860	360	315

※ 협회 회원사 기준

□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입가격 및 환율

(단위 : \$/톤, 원)

구 분	2021년		2022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암모니아	437	672	957	936
D A P	485	749	948	859
염화칼륨	271	363	633	965
환 율 (매매기준율)	1,117	1,171	1,232	1,351

※ 관세청 무역통계자료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인용

6 무기질비료 우수성 홍보

□ 무기질비료와 친환경농업

오늘날 모든 산업 활동은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으며, 농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신사고에 부응하여 선구적 농업 경영인들이 유기농법이나 자연농법 등의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자연 친화적 농법을 농업 현장에서 실험하고 있지만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 접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연친화적 농법을 시도하는 사람들로 부터 그 격에 맞지 않게 백안시 되고 있는 것이 무기질 비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기질비료는 인공적으로 합성되거나 변형된 물질이기는 하지만 자연생태계에 이미 존재하는 물질들로서 일단 투여된 무기질비료는 생태계의 물질순환에 위배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삼요소외의 비종별 생태계내 행방을 추적한 결과 토양산성화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토양미생물의 활성화, 토양부식의 생산 및 토양물리성의 개선 등 긴 시간에 걸쳐 토양의 기반을 조성하는 물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영양 측면에서는 미생물의 활동을 거쳐 무기화된 연후에 식물영양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비료로서의 효과를 인간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무기질비료는 식물에 즉각적인 생육반응을 나타내므로 식물의 영양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활동의 가장 큰 목표는 충분한 먹거리 생산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질 비료에만 의존하면 농업의 주된 목표를 일관되게 높은 수준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기질비료의 효능을 무시한다면 가뜩이나 협소한 농경지 면적으로 저조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식량자급률이 떨어지는 것은 곧바로 우리 국토의 환경오염에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곡물을 들여온다는 것은 외국 생태계에서 순환하던 물질이 우리나라 생태계에 편입되어 순환되므로 환경 부하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 전체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면 무기질비료의 사용은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자료 : 한국토양비료학회 '토양과 비료'(2004.9.), 한경대 이상은 교수

7 이달의 주요 인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사 안내(‘23.4.12일자)

- 16대 한두봉 원장 취임

8 회원사 제품소개

□ 남해화학(주)



- 제품명 : 골드슈퍼
- 성분량 : 28-8-9+1+0.1
- 특성 및 효과
 - 측조시비에 적합하도록 설계
 - 완효성요소 함유로 효과가 지속적
 - 고토와 붕소를 함유하여 미질을 향상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주)조비



- 제품명 : 단한번
- 성분량 : 18-7-9+2+아미톤 (완효성)
- 특성 및 효과
 - 밑거름 한번으로 비효가 3~4개월 지속되는 완효성 비료
 - 입자가 균일하고 단단하여 측조시비에 적합한 비료
 - 대사활성물질 아미톤이 함유되어 초기생육이 증진되며 수확량과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줌
 - 고추/마늘/양파 등 생육기간 긴 원예작물에도 효과가 좋음

□ (주)카프로



- 제품명 : 유안비료(황산암모늄)
- 성분량 : 질소 20.5%, 유황 24%
- 특성 및 효과
 - 녹거나 굳어지는 일이 적어 수송이나 보관하기 좋고 물과 토양중에서 잘 녹으며 암모니아태 질소로서 화학반응 없이 벼에 직접 흡수되므로 요소보다 질소 흡수율이 높음
 - 채소, 과수와 같은 유황을 다량으로 요구하는 작물에 효과가 큼

□ (주)팜한농



- 제품명 : 광분해 한번에측조
- 성분량 : 32-7-7 (100% 코팅 완효성 비료)
- 특성 및 효과
 - 일반 완효성 비료 대비 절반만 사용해도 동일 수확량을 기대할수 있음
 - 벼 생육 전반에 영양분이 지속 공급되므로 추비 생략이 가능하여 노동력이 절감되고 고품질 쌀 생산에 도움이 됨
 - 100% 코팅이라 시비가 막힘이 없고 기계 부식을 막아주는 농기계 작업에 최적화된 비료
 - 광분해 기술이 적용된 환경친화적인 비료로 코팅 껍질 잔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비료 사용량이 절감되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탄소저감에도 기여
 - 잡초와 조류(이끼)의 발생이 줄어들고 도복에도 강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녹색인증과 신기술 인증을 받아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그 우수성이 공인

□ (주)풍농



- 제품명 : 일회만290
- 성분량 : 22-9-10, 고토1, 완효성비료
- 특성 및 효과
 - 밀거름 1회 시비만으로도 작물의 전 생육기간동안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는 완효성비료
 - 고농도 완효성 복합비료로 시비량이 적어 시비 노력비를 줄여주며, 균일한 입자형태로 측조시비 등 기계시비가 편리
 - 비료의 유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해주며, 양분의 과부족 발생없이 생육을 늘 건전하게함

□ (주)한국협화



- 제품명 : 땅심측조짱
- 성분량 : 28-7-9+1+0.1(규산, 칼슘, 미량요소 함유)
- 특성 및 효과
 - 완효성 함유, 고농도 측조시비 전용비료
 - 초기생육에 효과적이며, 증수효과 우수
 - 비효가 오래 지속되며 미질향상

□ (주) 세기



- 제품명 : 원샷올인원
- 성분량 : 20-7-8+2+0.2(완효성비료)
- 특성 및 효과
 - 완효성 복합비료로 밀거름1회 시비로 생육기간동안 필요한 양분을 공급
 - 입도가 균일하여 기계 살포 및 측조시비에 용이
 - 고토 및 붕소를 함유하여 미질 향상



식량과 비료

-2023년 4월호-

□ KG케미칼(주)



- 제품명 : 미생물논비료
- 성분량 : 28-6-7+1+0.1
- 특성 및 효과
 - 미생물 함유로 염류피해 및 병해충 경감에 도움
 - 측조시비에 탁월하며 사용량 적어 노동력 절감

※ 무기질비료 사용 안내서 인용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식량과 비료

-2023년 4월호-

KFA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